

## 기조연설

### 『한중인문학의 현재와 미래』

이강재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본부장

### 『인공지능의 철학적 문제』

자오퉁양(赵汀阳) /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연구원



## 한중 인문학의 현재와 미래

이강재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 1.

코로나19 현대사회는 문명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아날로그문명에서 디지털문명으로의 전환이며, 인간 중심의 문명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다. AI, Big Data 등 현대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인간의 삶을 고민하게 만들어 주었고, 환경의 파괴로부터 시작된 자연의 복수는 이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선진국을 모방하던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과 경제적 성장 중심에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성숙성장 중심으로의 전환의 시대이다. 이는 한국은 물론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장 중심 사회는 이익의 추구를 중시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는데, 이제 이를 극복하고 조화와 협력, 소통에 근거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대동사회(大同社會)’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숙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성숙한 사회 만들기는 산업과 경제, 과학기술만으로 성장을 추동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인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 지난 2년 넘은 기간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던 코로나19를 비롯한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역시 중요한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코로나19는 미래에도 수많은 재난과 미지의 질병(Disease-X)이 발생할 것이며, untact가 일상화된 뉴노멀(new normal) 사회가 도래하였으며, 또 인구와 경제 두 측면에서 확장을 거듭하던 세계가 이제 수축을 경험해야 할 시대가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또 인문학자들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드러나 세계 각국의 여실한 모습은 그동안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개발과 성장만을 중시해온 국가와 세계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명대전환의 시대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나타난 세계적 변화와 관련된 인문학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래의 인문학이 해야 할 역할을 논하려고 한다. 또한 한중 인문학계는 이에 대해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며, 향후 한중인문학포럼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 2.

최근 AI의 발달과 관련하여 충격을 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먼저 2016년 3월 한국의 이세돌 9단은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만든 AI 바둑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 바둑 경기를 해서 알파고에게 4 대 1로 패배하였다. 1997년 IBM 슈퍼컴퓨터의 체스 프로그램이 당시 체스 세계챔피언 개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를 물리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둑은 체스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기계가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20년 만에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경기 후 이세돌은 은퇴를 선언하고 바둑 경기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2020년 한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챗봇 ‘이루다’를 공개했다. 이 챗봇은 이용자와 일상 대화를 하는 것인데, 공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터의 편향성, 성희롱,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이 일어나면서 곧바로 폐쇄되었다. 인간과의 대화에서 성희롱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또 심각하게 개인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AI에 인간의 윤리가 고려되어야 함에도 그 점을 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루다’는 2022년 3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지금은 ‘이루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처음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아서 논란 자체도 별로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킨 중요한 사건이었다.

금년 7월 17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체스 포럼 경기장에서 체스 로봇이 7세 어린아이의 손가락을 골절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사람들의 생각 속에만 있던 ‘로봇에 의한 인명 피해’ 우려가 현실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행사의 주최 기관은 어린이 선수가 체스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아이의 행동에 대해 로봇이 곧바로 반응 동작을 취했고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번 사고가 ‘로봇의 반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향후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한다면 결국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물론 산업 현장에서 로봇에 의한 인명 피해는 이전부터 있었다. 1979년 미국의 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가 로봇팔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고 이후 매년 로봇 관련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국에서도 2016년 선전(深圳)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의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 ‘샤오팡’(小胖·작은 똥보)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물건을 파손하고 사람을 위협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AI는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산업 현장은 물론 집안의 가전제품에도 들어와 있고, 매일 접하는 인터넷 포털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의 SNS 역시 AI 기능에 의해 작동된다. 이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영상이나 정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사용자가 원하는 성향의 정보만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



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 양극화, 진영론, 음모론적 사유방식이 많고 또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이는 보편성에 입각한 객관적 사유를 방해하고 편향성만 강해지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시켜서 극단적인 성향으로 사람을 내몰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내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분출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최근 중국 내의 혐한(嫌韓) 기류나 한국 내의 혐중(嫌中) 기류의 확대는 이와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의 조류가 지속된다면 세계적인 갈등의 요인들이 증가하여 전쟁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의 급증이 이루어지고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향후 인문학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인간의 사유 세계를 다루는 인문학은 언어,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그것을 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 시민교육, 평생교육으로 환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면서 극단적인 사유를 지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보편적 사유에 입각하여 모두 함께 사는 세계를 지향한다. 따라서 인문학은 AI 개발자들이 먼저 인간 중심적인 사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서 통제할 수 없는 기계의 세상이 오기 전인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당장은 세계가 경쟁적으로 AI와 로봇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AI’(Human Learning AI)가 AI 개발의 종착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문학자 개인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인간의 보편성에 입각한 인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와 교류 역시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에 대해 두 가지를 더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디지털문명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서의 인문학 콘텐츠이다. 스티브잡스의 애플사에서 보듯이 모든 가치의 원천으로서 인문학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토지나 농업, 금융 등이 가치의 주된 원천이었지만 이제 인문학 콘텐츠나 스토리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원천 콘텐츠에 대한 역할 인식에서 진정한 미래 지향적 가치 창출이 이루어진다. 특히 한국은 물론 중국은 더더욱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원천으로서의 스토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의 성숙한 사회로의 성장은 인문학 기반에서 나올 것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인문학자에게 있다. 여기에서 인문학을 단순히 교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다. 스토리와 역사와 해석을 통해 재생산되고 확산되며 거기에서 발전과 혁신의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인문학은 가치 생산의 가장 큰 원천이고 출발점이며, 따라서 인문학 역시 생산적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진정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콘텐츠가 없다면 AI 발달의 근간이 되는 딥러닝(Deep Learning)이 불가능하므로 생산적 영역의 가장 기본 베이스캠프가 인문학이다.

다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선도하는 인문학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기술혁신과 노동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을 ‘혁신’이라고 보았는데, 사실 인문학에서 말하는 비판력과 상상력이 진정한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힘이다. 비판과 상상은 인문학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것은 단순히 양

적 팽창으로만 나아가려는 세계를 튼튼한 기반 위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질적 성장을 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 점에서 인문학자들도 전통적인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이라는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혁신적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부조리 등 많은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주어야 하며, 단순히 자기만족에 의한 연구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에서 말하는 혁신도 사실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인문학적 가치의 실현이다. 과학기술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지배를 받아 생활세계로 나와야 하는데, 이때 인간의 삶과 생활, 행복이라는 것과 만나야 된다. 여기에서 과학기술은 당연히 인문학과 만나며 이를 통해서만 사회적 가치가 확대되고 커져가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나는 그동안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을 통해서만 국가와 세계, 인류를 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학술경국(學術經國)’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 3.

코로나19는 그동안 계속 발전해온 인류문명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전까지 미처 주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여주면서 인문학자들에게 우리는 미래의 세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다음 몇 가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첫째는 세계와 인류에 대한 인식이다. 인간 존재는 미세한 바이러스에도 허약한 존재이며 인류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주었다. 기존 선진국이 갖고 있는 부정적 모습이 새삼스럽게 확인되었으며 WHO 등 국제기구가 기대보다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연과의 공생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지구의 거주자는 인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또한 그동안 지속 가능한 인류와 세계 및 자연을 위한 개인-국가-국제 차원에서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었음을 알려주었다.

둘째는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관계가 사회적 삶뿐 아니라 개인적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람, 상품, 자본, 노동, 지식, 이념, 문화, 범죄, 공해, 재난 등이 특정 국민국가의 영토 안에 한정되지 않고, 다차원적 네트워크 안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오고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타자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생에 대한 자각의 계기도 되었다. 감염병은 국가 간의 새로운 장벽을 만들어냈지만 인류 공동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셋째는 노멀(Normal)에 대한 인식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근본부터 다시 짚어보게 되었으며, 익숙하지만 불필요한 습관, 과정, 조직, 제도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의 존속을 위해 꼭 필요한 일과 사람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 및 그 한계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다. 일개 국가의 안보는 단순히 군사적 영역만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공공 보건과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문화적 대처 역량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인문학적 방어의 절실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안전을 위한 노력에서 민주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리더의 역할에 대해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는 세계의 미성숙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 대처하는 과정에서 세계가 기존에 안고 있었던 제반 문제, 모순 등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바이러스의 무차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감염은 매우 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다. 여기에 더해 ‘인포데믹(infodemic: information+pandemic)’이라는 사회적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각하게 되었다. 인포데믹은 생명과 경제에 대한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 등에 편승한 혐오, 증오, 차별, 배제, 폭력 등의 확산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또한 ‘비정상 고위험/위급’ 상황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대응 시스템과 역량 등이 아직 허약하고 성숙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인류는 향후 또 다른 질병(Disease X)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회에서 코로나의 종결 혹은 코로나와의 공생이라는 엔데믹 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대부분이 영역에서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후의 인문학 역시 전통적인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영역의 연구, 교육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한 아래 몇 가지를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뉴노멀(new normal) 사회에 대한 인식이다. 이제 사회는 인간의 생존(안전, 방역)이 생활(경제, 자유)보다 우위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일상(교육, 노동, 소비, 관계)의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영위로 인해 공·사 영역이 중첩되고 ‘장소’에 대한 인식이 약화 또는 소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주류적 양식으로서의 ‘혼족’(solo族) 문화가 확산되며, 생명·인간다움·인간역량 등이 디지털화 및 공학기술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가 일상이 되고 상수가 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는 리뉴얼(renewal) 사회에 대한 인식이다. 앞의 뉴노멀과 함께 기존의 가치와 권위는 리셋(reset)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근대적 사회 재생산구조가 재구조화되는데, 이는 가족과 집, 교육과 학교, 노동과 회사(공장) 등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진다. ‘세계(globalism)’, ‘국가(nationalism)’, ‘개인(liberalism)’의 관계가 재설정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과 비(非)인간’이 공생하고 이것이 ‘개인’, ‘국가’, ‘국제’ 각 차원에서의 기본값(default)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재설계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는 블렌디드(blended) 사회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기존 노멀 사회와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사회의 병존을 의미한다. ‘ontact’와 ‘untact’가 병행되는 멀티택트(multi-tact) 사회가 일상화되며, 국제화(globalism)와 지역화(localization)가 아울러 중시되면서 글로컬(glocalization)이라는 지향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특정 국가나 세계 질서에 있어서 기존 중심이 분화하면서 다극화(多極化) 혹은 전혀 다른 형태의 무극화(無極化) 경향이 병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몇 가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라는 현상에 더해져 가속화되어 문명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미래 사회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첫째,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논하는 데 특정 분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갈수록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즉, 문명조건이 이미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과학과 공학만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인문학적 성찰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와 시장은 상품과 제품이 기술기반으로만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삶의 방식인 문화가 개입되어야만 하므로, 세계 전체와 개별 국가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관장하는 인문학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셋째, 인문학은 개별 국가와 인류 전체가 맞닥친 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AI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소외와 일터로부터 배제를 만들어낼 것이며, 이것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가 만연될 것이다. 이의 해결이 때로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공동체의 정체성 마련과 삶의 방식의 다양성, 각기 다른 의견과 세분화된 관점이 공존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만드는 데에 인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4.

이상에서 언급한 지식과 문명 조건의 변화가 던져준 문제에 대한 대응은 미래 인문학의 중요한 역할임에도, 이것은 개인 차원이나 단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개인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해결책은 공동체 차원의 합의와 실행을 통해서 가능하며,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특히 인간의 무차별적인 자연 남용과 파괴, 이로 인한 기후 위기와 자연 재해의 빈번한 발생, 코로나19 발생으로 인식된 향후 예상되는 자연의 보복 등은 특정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는 바로 이 점에서 한중인문학포럼의 중요성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2019년 11월 20일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역할을 시작한 바로 다음 날, 11월 21일부터 상해에서 열린 한중인문학포럼에 참석하였다. 즉 외견상 나의 임기를 한중인문학포럼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을 맡기로 결정되면서 한중인문학포럼에 꼭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명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이 날에 맞춘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에게 있어 한중인문학포럼은 양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이 있으며 향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부터 비대면으로 포럼이 진행되어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올해까지 몇 년의 ‘숨고르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2022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이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음에도 한국과 중국은 굳건하게 든든한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함께 발전해왔다. 그럼에도 2016년 사드 배치 사태와 최근 미중의 갈등 심화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인접한 국가는 언제나 크고 작은 갈등 요인이 많지만, 서로 협력할 때 발전하고 서로 갈등할 때 모두의 발전에 장애가 생긴다. 한중 관계는 1950년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변경의 역사 문제, 문화적 영향 관계의 문제 등 눈에 보이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인이 적지 않다. 이는 과거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 미중 갈등은 그대로 한중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향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한중인문학포럼이 갖는 아래와 같은 현재적 및 미래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첫째, 포럼은 양국은 물론 세계적인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서로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인정하 바탕 위에서 갈등 요인을 내포하는 주제보다는 협력적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가령 앞서 언급한 AI 등의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세계적인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인문학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질병의 만연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어떤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서구 문화 이해에 대한 동아시아 공동의 시각은 어떠한지 등이 그것이다. 2021년 ‘생태문명’을 주제로 한 것이나 금년에 ‘미래사회와 인문학’을 주제로 삼은 것도 좋은 예이다.

둘째, 정치적, 외교적 갈등 요인을 인문학을 통해 완화시키고 극복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최근 한중 양국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 혐증과 혐한 현상이 일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반면에 한국에서 젊은 층의 마라열풍 역시 만만치 않다. 전국 곳곳에 마라탕, 마라샹궈, 휘귀 등 중국의 음식과 문화에 빠진 매니아 계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40대 이상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상대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도 K-Pop, K-드라마의 열풍이 여전하며 한국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은 미디어의 왜곡된 의식에 기반하고 있거나 정치적인 이벤트 기간에 그것을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단체 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끝났고 중국은 하반기에 중요한 정치 일정이 끝날 예정이다. 이 이후에는 다른 때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이 때문에 나는 금년 말부터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토론과 학습이 가능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치적인 갈등의 심화는 인문학적 사유와 화해의 가능성을 삭감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반면에 인문학적 논의는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면서 미래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외교적인 갈등 상황이 심화될수록 오히려 인문학을 통한 교류를 지속하면서 포럼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건대, 2022년은 한중인문학포럼의 제8차 년도인데, 최소한 10차년도까지는 포럼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겪는다. 또한 이후 10년은 포럼을 통한 논의가 발전하여 양국



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기이며, 또 다시 10년은 논의가 심화되면서 서로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어 포럼 성과가 크게 확산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부터 향후 몇 년이 이 포럼의 성과가 양국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는 시점일 것이다. 따라서 한중인문학포럼은 앞으로 더 한층 중시되어 하며, 다방면에 있어서 양국의 인문학자들이 함께 하는 학술적 토론의 자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한중 양국의 인문학자의 관심은 물론 국가적 지원 역시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챗봇 AI 서비스 '이루다2.0', 오픈 베타 테스트로 전환>, 디지털투데이 2022.3.14.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286>
- <7살 손가락 부러뜨린지도 모르는 체스선수…커지는 로봇 우려>, 중앙일보 2022.7.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9976>
- 김봉익 외,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현재와 미래>, 2022.7.18. 한국연구재단 이슈리포트
- 안재원 외, <코로나19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2020.8.17. 한국연구재단 이슈리포트
- 이강재, <문명대전환 시대 인문사회 학술정책의 혁신적 재구조화 제안>, 2022.2.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고등교육현안토론회 발표문
- 이강재,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의 현황과 과제>, 2021.7.1. 교육개발원 교육현안보고서 제6호.
- 이강재, <인문사회는 단순 교양 아니다, 생산 영역의 베이스 캠프>, 2022.1.17. 교수신문 인터뷰
- 이강재, <학술진흥 정책 수립체계 재정립 및 중장기 학술진흥방안 연구>, 2019.9.10.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보고서.
- 이강재. <코로나 너머 '성숙한국'을 위한 인문사회 학술지원-균형과 지속 발전을 위한 학술지원>, 2021.11.5. 국가교육회의 고등직업교육개혁전문위원회 발표문
- 이광형, <21세기 르네상스: Digital Humanity>, 2022.3.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KAIST 공동 주최 토론회
- 조동성, <AI가 인간에게 묻는다 -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언제 오는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2021.7.21. KAIST김재철 AI대학원 토론회 발표문
- 한국연구재단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대비 TF, <미래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대비 연구지원 전략>, 2020.8.1. 한국연구재단 이슈리포트

